

또 하나의 백제, 예산

윤 용 혁 (공주대학교 교수)

추수가 끝난 후 형제가 자신의 벳가리를 몰래 형에게, 아우에게 서로 옮겨놓다가 결국 달밤에 마주친다는 감동적인 형제 우애 이야기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옛날 예산의 실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들 형제가 살던 마을이 예산에 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백제 부흥전쟁이 치열하였던 임존성의 마을이다.

차동고개 넘어, 금오산 자락의 예산으로 거처를 옮긴 지 10년이 넘었다. 그 10년 생활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백제를 본다.

까마귀가 전해준 소식

공주가 금강을 끼고 있다면, 예산은 무한천(삼교천)을 끼고 있다. 공주에 계룡산이 있지만, 예산에는 가야산이 있다. 금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무한천(삼교천)은 드물게도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이 내륙수로 주변에 예당평야의 넓은 들이 펼쳐져 풍요를 약속하고 있다.

예산은 원래 예산, 대흥, 덕산의 3개 군현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1914년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예산군으로 통합된 것이다. 대흥은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댐이 건설되어 예당저수지의 넓은 물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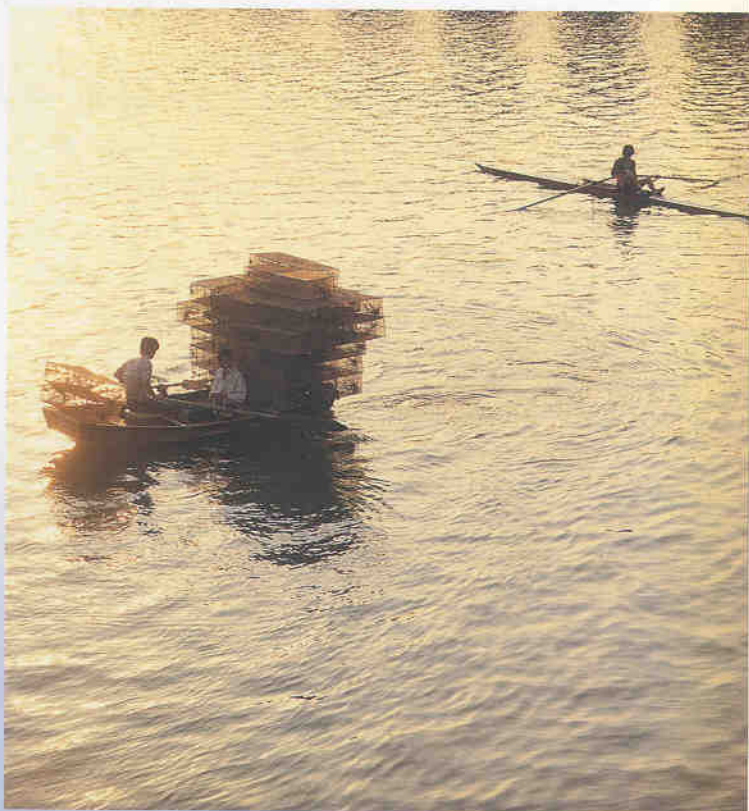


이 되고 말았다. 덕산은 수덕사와 가야산 등을 끼고 있으면서 온천타운의 관광지로서 발전하고 있다.

예산의 이름은 고려 건국 직후인 919년 태조 왕건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후자는 "예의의 고장이어서 예산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예의의 고장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름의 근원은 '오산'이라는 이름을 아화(雅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건은 후백제를 공략하는 전략으로서 예산을 내포지역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다.

'예산'이라는 이름 이전,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산의 이름은 오산(烏山)이다. 지금도 예산의 진산 이름이 금오산(金烏山)이다. '오산'에는 까마귀가 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가장 오랜 상징은 까마귀이다. 예산 읍내 금오산 기슭의 작은 고찰 향천사에는 절을 처음 지으려 할 때 까마귀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절의 창사설화로 전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 역사의 개시에 대한 설화이다. 말하자면 예산의 '단군신화'라 할만한 이야기이다.

근년 예산군에서는 예산의 군조(郡鳥)를 까치에서 다른



예당저수지



새로 바꾸고자 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새로운 예산의 군조로 나는 '까마귀'를 제안하였는데, 그러나 '까마귀'를 군조로 채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까마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었다. 까마귀가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갖게 된 것은 아마 후대, 특히 조선시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조선시대에도 까마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박효관의 시조에서 보듯이, 까마귀는 효의 상징이었다.

뉘라서 가마귀를 잡고 흉타고 하였는고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괴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고구려 고분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태양 속에 들어 있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고, 신성한 신조(神鳥)였다. 후삼국시대, 궁예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준 새도 까마귀였다. 당시 까마귀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길조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검은색은 악이고, 흰 것이 선이라는 관념에 의하여 까마귀는 악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까마귀는, 이른바 '흑백논리'의 희생자인 셈이다.



예당저수지



호서은행

곰창에서 갈비까지

"홍성 가서는 말 잘하는 체 말고, 예산 가서는 옷 잘입은 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예산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예산은 내포지방 경제의 중심이었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인 '호서은행'이 바로 예산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예산의 경제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제 때의 호서은행의 건물은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다른 이름의 은행으로 사용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 발행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도청 소재지인 공주에서 1년 동안

거래된 돈이 26만 6백원이었는데, 예산에서 거래된 금액이 44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1926년에는 명주실을 생산하는 제사공장이 읍내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충남방직의 전신에 해당한다.

경제 혹은 지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예산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고, 그래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그중 하나가 갈비이다. 갈비는 예산읍내와 덕산 쪽의 고덕이 유명한데, 예산읍-덕산과는 서로 삼각지점에 해당하는 광시(면)은 질 좋은 한우 육고기의 집산지로 유명하여, 정육상점이 거리에 즐비하게 타운을 이루고 있다. 갈비와는 부위가 다르지만, 삼교의 곰창도 빼놓을 수 없는 예산의 음식이다. 삼교는 곰창과 '삼다리 총각'으로 알려져 있지만, "1.4 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았던 가수 조영남씨의 연고지, '내 고향 충청도'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의 노래비가 읍내의 길가에 서있다. 이 삼교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예당저수지가 펼쳐진다. 경향각지에서 태공들이 모여들고, 붕어찜과 매운탕을 맛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1천 4백년 전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기도 하다. 일제 때까지는 삼교천(무한천) 물길을 통해서 서해바다의 고깃배들이 직접 예산에 와 닿았다.

육고기와는 종류가 다르지만, 사과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산의 농업특산품이다. 예산 일대는 넓은 평야와 함께 낮은 구릉상의 지형이 매우 발달해 있다. 산이나 들이나 바다보다도, 사람에게 가장 평화로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넓게 펼쳐진 구릉인 것 같다. 여기에 일제 이후 사과 작목이 집중 육성되었다. 예산의 사과는 선물로는 매우 좋은 품목이다. 특히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만회하기에는 사과만한 것이 없다. '사과로 사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전에는 담배도 많이 하

고 뿔밭도 넓었다고 한다. 예산의 농업 발전은 이곳에 예산농업학교를 설치시켰고, 이 '예농'은 몇 차례 변신을 통하여 지금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산업과학대학)가 되어 있다.

흑치상지의 애환서린 임존성

공주·부여가 백제의 왕도였다면, 예산은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다. 예산의 대흥은 백제시대의 임존성으로서 백제 멸망 직후, 백제 부흥운동의 2대 거점, 그리고 부흥운동 최초로부터 최후까지의 거점으로서 알려져 있다.

부여 도성은 660년 7월 13일 나당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공주로 피란하였던 의자왕은 7월 19일 항복하였다. 8월 2

일에는 부여에서 나당군의 전승 축하연이 거행되었다. 그 날 신라 무열왕 김춘추는 당장 소정방과 함께 당상에서 올라앉아, 패망한 나라의 의자왕과 왕자 부여 룡으로 하여금 당하에서 술을 따라 올리게 하였다. 이 참담한 광경에 백제 신하들의 소리죽인 울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9월 3일 소정방은 의자왕과 백제왕족 신하 93인, 백제민 1만 2천을 포로로하여 당으로 돌아갔다. 백제부흥의 기세를 꺾기 위한 것이었다. 의자왕은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생전 부여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낙양성 십리허'의 북망산에 묻혔다.

예산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시발지였다. 흑치상지 장군이 부흥군을 봉기하자 불과 10일만에 무려 3만이 이에 호응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여에서 전승 축하연을



임존성

별인 소정방은 곧 나당군을 끌고 예산 임존성을 공격하였는데, 그것이 8월 26일의 일이었다. 임존성 공격이 실패하자 소정방은 부여로 돌아가 의자왕을 포로로 귀국하였던 것이다. 그후 임존성에 있던 복신 등이 주류성으로 거점을 옮겨 왕자 부여풍을 부흥백제국의 왕으로 옹립하였는데, 임존성은 주류성이 함락 당한 이후까지 부흥군의 거점을 유지하였다. 663년 9월 주류성을 함락한 나당군은 10월 22일부터 최후거점 임존성으로 공격을 집중, 11월에 드디어 임존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도학 교수는 임존성의 의미에 대하여 "임존성 봉기는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뿌리가 되었다"고 규정하고, 바로 그 의로운 정신이 계승되어 내포지역에서 많은 순교자와 의사, 지사들이 배출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임존성에 대한 최후 공격에서 김유신군은 한 달동안의 공격에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임존성을 함락시킨 것은 임존성 부흥운동의 영웅 흑치상지였다. 흑치상지 장군은 중도에 나당군에 항복하였으며, 임존성 함락으로 부흥군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당의 장군으로 승승장구하여 토번, 돌궐 등 지금의 티벳, 내몽고 등지에서의 싸움에서 크게 무략을 떨쳤다. 끝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였으며, 1929년에 북망산에서 도굴꾼에 의하여 묘는 파헤쳐졌다. 묘에서는 2개체의 유체(뼈)가 나왔다고 하는데, 흑치상지와 흑치준 부자의 묘지석이 나옴으로써, 도굴된 묘가 흑치상지 부자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원재 교수는 덕산의 향토사학자 박성홍 선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흑치상지 장군이 아마도 예산, 더 구체적으로는 덕산 출신일 것으로 단정하였다. 흑치(黑齒)가 고대 덕산의 옛이름 '금물(今勿)' '금무(今武)' 등과 같은 뜻이라는 점, 흑치상지가 백제 서부(西部) 지역 출신이라는 점, 예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봉기한 점에서 예산 지역 출신

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유교수는 믿고 있다. 정청할만한 의견이다.

이도학 교수는 그의 책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에 '한 무장의 비장한 생애에 대한 변명'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교수는 흑치상지의 생애를 '가슴저린 생애'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처럼 부침(浮沈)과 곡절(曲折)이 심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다. 비장한 순간 순간과 그러한 면면을 접할라치면 가슴이 찡하게 울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또 태산같은 장군의 성품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흑치상지가 몸을 던지고, 3년 여의 부흥전쟁이 전개되었던 임존성 봉수산 아래에서는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태공들이 한가롭게 낚시를 물에 던지고 있다. 예당저수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가는 조객(釣客)들로 하여금 흑치상지와 임존성의 역사를 알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될 것만 같다. 그래서 나는 이 흑치장군의 사적을 예당 저수지의 부근 임존성 가까운 곳에, 언젠가는 새겨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백제3불'과 4면석불

흑치상지가 예산에서 백제 부흥의 기치를 올렸을 때, 이에 호응하여 순식간에 3만의 사람들이 집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갖은 공격을 이기며 3년 세월을 버텨 나간다. 예산 지역이 부흥운동 최초의 시발지이며 최후의 거점일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예산의 봉산면 화전리에 남겨진 백제불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

한다.

백제시대의 예산은 도성지역 밖의 외곽, 혹은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백제문화 발전의 그릇이 되었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의 불교사찰은 공주, 부여의 도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산지역 일대는 지방으로서는 드물게 절이 들어섰고 상당한 수준의 불교문화 발전의 거점이 되었다. 보물 7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봉산면 화전리의 백제 사면석불은 당시 불교문화 거점으로서의 예산지역의 비중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인근 서산 운산면 용현리 마애불, 태안읍 백화산 마애불은 예산의 사면석불과 함께 가야산 주변 일대가 백제시대 중요한 지방의 불교 거점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봉산면의 백제

사면석불



태안마애불

사면석불은 높이 약 3미터, 사방으로 불상을 조각하였는데, 그 솜씨는 유명한 서산의 마애불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

예산의 사면석불은 서기 6세기의 것으로, 내포지역의 '백제3불'중 아마 가장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산과 태안 등 삼불의 다른 부처가 평면에 삼존불을 조각한 것과는 달리, 바위 덩어리 사방에 각양의 불상 도합 4개를 조각하였다. 그중에는 앉아 있는 좌불, 서있는 입불도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사면불의 얼굴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나는 종종 이 불상을 소개할 때 '면목(面目)없는 부처님'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요즘 이 불상을 생각하면 정말 면목이 없다. 내포지역의 '백제삼불'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지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최근 태안 마애불이 보물에서 국보로 다시 지정을 받았다), 주차시설이 없어 단체로 갈 경우 차도를 송두리째 막고 버스를 주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원시적' 여건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나 비록 '면목은 없지만', 갈 때마다 불상의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광배의 조각, 두광의 연꽃무늬를 보노라면 1천 4백년 전 백제 예인(藝人)의 힘과 정신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는다.



수덕사 대웅전

"무너진 섬돌엔 이끼가 끼어 있네"

예산의 사면불을 비롯한 '백제3불'은 백제시대 내포지방이 불교문화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예산의 수덕사가 지방에서는, 드물게 백제시대 창건의 절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흔히 충남지역에서 오랜 역사의 절에 가면 으레 '백제 창건의 절'이라는 안내문을 접한다. 그러나 실제 백제 창건의 남은 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수덕사가 백제 창건의 절임은 문헌기록과 함께 절에서 나온 아름다운 백제 와당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백제시대의 불교는 후대와는 달리 철저히 왕족 내지 귀족들만의 종교였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왕족과 귀족들이 거주하는 왕도(도성)의 종교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성 부여에서 멀리 떨어진 예산 일대에 어떻게 불교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닐 수 없다. 백제시대에 있어서 예산 일대는 불교문화의 거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문화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나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제 당시 이 지역이 갖는 존재위치나 비중과 관계되는 일이다. 백제 도성이 함락된 이후, 어떻게 예산의 임존성이 곧 바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부상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순



수덕사 대웅전 내부

식간에 '3만'의 부흥군이 물려줄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수덕사와 사면불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백제 창건의 수덕사는 오늘날 경내의 대웅전(국보 49호) 건물로 유명하다. 이 건물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의 건축으로서, 창건연대가 확실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꼽히고 있다. 맞배지붕 중심포 건물 양식으로 단순성과 간결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간결한 것의 힘과 멋"을 보여주는 이 대웅전에 대하여 유흥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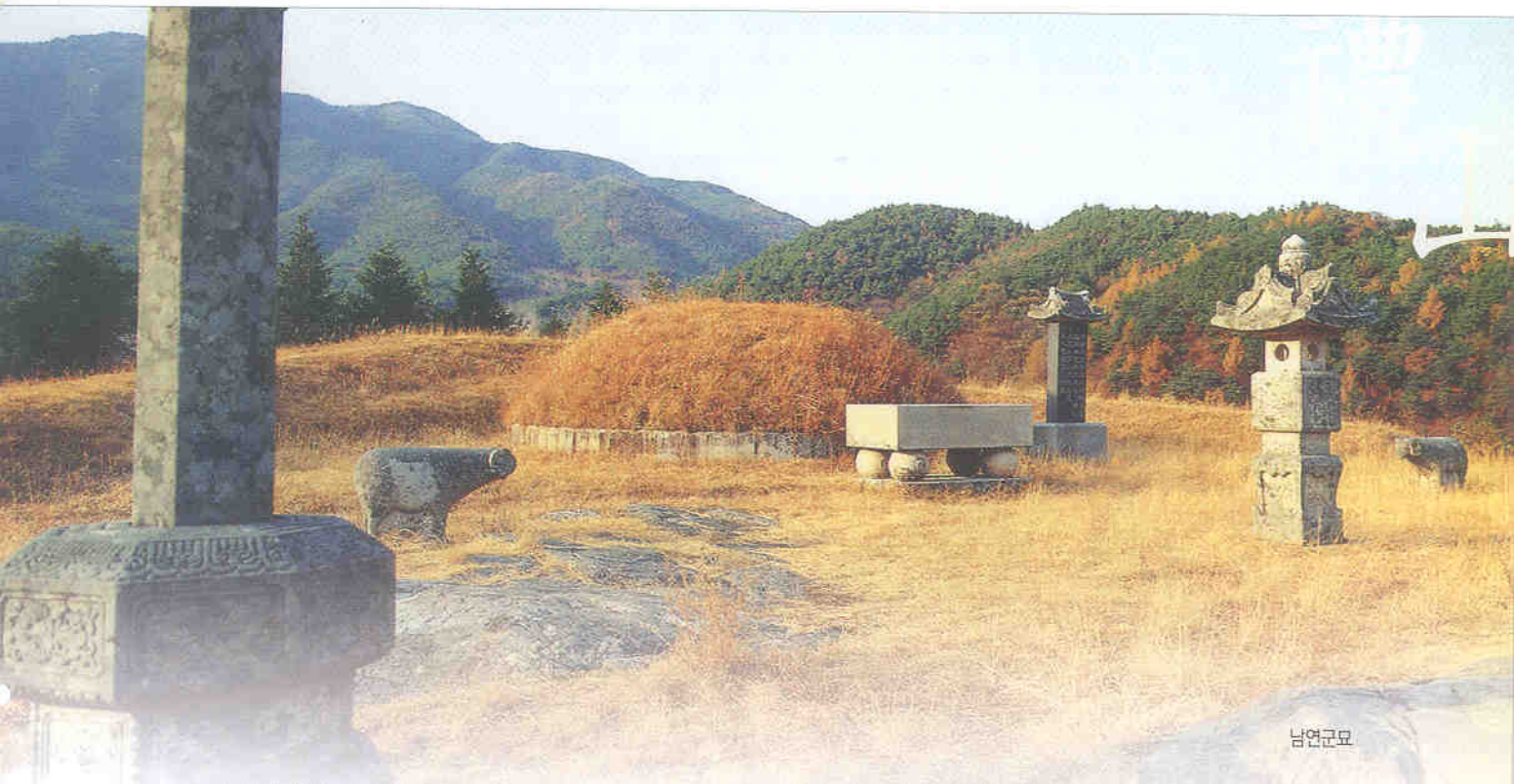
수덕사 대웅전 건축은 그 구조와 외형이 아주 단순하다.

화려하고 장식이 많아야 눈이 휘둥그레지는 현대인에게 이 단순성이 보여주는 간결한 것의 아름다움,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수식이 가해지지 않은 필요미(必要美)는 얼른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덕사 대웅전의 저 간결미와 필요미가 연출한 정숙한 아름다움에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가벼운 밀화장만 한 중년의 미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이다.

수덕사에는 대웅전 이외에 보물급의 불교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문화재 지정조사 관계로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들 유물들을 한꺼번에 직접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백제 이후 예산의 사찰중 가장 번창하였던 것은 가야사였다. 가야사는 특히 고려시대 내포지역의 최대 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 절의 세력이 기울고, 대원군에 의하여 폐사되는 운명이 되었으나 그 넓은 절터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가야사 터를 내려다보는 언덕, 원래 가야사의 금탑이 있었다는 자리에는 대원군이 만든 그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있다. 이 산소의 음택(?)으로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수 년 전 풍수지리에 의한 음택잡기로 유명한 육관도사라는 분이 있었다. 자신의 묘를 어디로 잡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큰 관심이었는데, 그 분의 유택(幽宅)은 이 남연군 묘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예산 읍내의 고찰로는 향천사가 유명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위기 있는 절이며, 13세기 고려시대 문장가로 유명한 이규보의 향천사 시가 전하기도 한다.



남연군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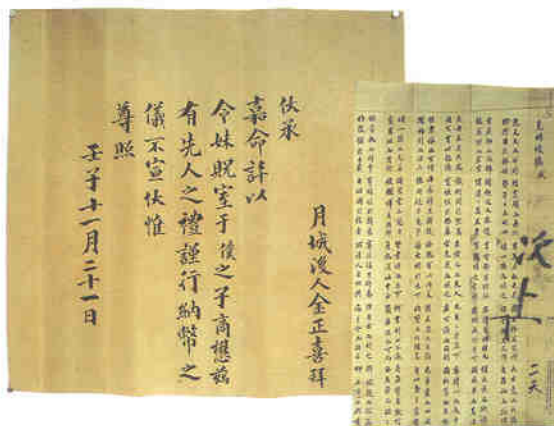
옛 우물에는 오동잎이 가득하고
무너진 섬돌엔 이끼가 끼어 있네

'향천(香泉)'이라는 이름 그대로, 향천사는 당시에도 좋은 물의 샘이 유명했던 모양이다. 일제 때는 이 계곡의 물을 받아 식수를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절의 입구밖에 '웃샘 약수'라는 물길는 터가 있다. 절 뒤 부도밭에서는 의각국사의 얼굴로 생각되는 친근감 주는 작은 인면상(人面像)이 부도의 지붕 용마루쯤에 새겨져 있다. 이 '예산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도, 절을 찾는 작은 즐거움이 된다. 도화에 가깝게 있으면서도, 이처럼 산속 깊은 곳의 고찰 같은 느낌을 주는 절도 드물 것이다.

봄에는 매헌(梅軒), 가을에는 추사(秋史)

만일 예산의 인물과 관련하여 '예산 3절'의 사적을 선정한다면, 어떤 곳을 들 수 있을까? 3인중 적어도 2인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을 줄 안다. 첫째는 조선시대 후기

의 금석학자이며 한국최고의 서예가라 할 추사 김정희(1786-1856)이고, 둘째는 1932년 중국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장성들을 폭사시키고 처형당 하였던 윤봉길 의사(1908-1932)이다. 근년 추사선생에 대한 평전이 유홍준 교수에 의하여 출간되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는 추사 선생의 고택 등의 유물 유적(보물 547호, 천연기념물 106호, 충남도 유형문화재 43-45호, 기념물 24호, 188-189호)이 자





추사 김정희

리하고 있고 인근 화암사라는 절에는 그의 필적이 남아 있
거니와(도기념물 151호), 유홍준 교수는 추사선생을 "정녕
나로서는 넘어가기 힘든 강파르고 아득히 높기만한 거봉"
이라고 표현하였다.



추사 고택

온천으로 유명한 덕산 온천면의 시랑리에는 윤봉길 의
사의 생가와 '충의사'로 불리는 사당, 그리고 기념관 등이
있다(사적 229호, 보물 568호). 덕산온천은 교통 때문에
근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붐비지 않았던 곳이지만, 온천
의 수질로 말하면 옛 백제의 영역에서는 가장 좋은 온천의
하나로 손꼽힐만한 곳이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의 홍구공
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여 쇼와(昭和) 천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아수라장으로 만듦으로써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세계에 고발하였다. 이 의거에 대하여 당시 중
국 총통 장개석이 "중국군 백만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
냈다"고 격찬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날이 4
월 29일이었고, 이 때문에 매년 4월 말에는 대한문화제가
덕산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4월 29일은 윤의사의 의거
일이지만, 이날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공휴일이다. 천왕의
생일이기 때문인데, 쇼와천왕의 사망 이후로는 자연과 친
화하는 '녹색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계속 축일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이다.



충의사

내가 종종 들르는 예산읍내 개장국집의 방 벽에는, 윤봉길 의사가 1930년 고향에서 만주 땅으로 망명할 때 남겼다는 한 줄 시문의 복사본이 걸려 있다. "丈夫出家 生不還",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의 기개가 얼마나 치열하였나 짐작할 수 있다. 거사 이후 의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으로 호송되어, 12월 19일 총살형에 처해졌다. 윤의사의 의거일을 앞둔 어느 해 4월 11일 여러 신문에는 윤의사의 총살형 장면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기사의 제목은 "일제는 무릎꿇린 채 총살했지만, 윤의사는 끝내 굽히지 않았다"고 하고, 처형 직전과 직후의 두 장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 "처



윤봉길 생가



수덕여관

형 직후 일본 헌병이 쏜 총탄이 윤의사의 이마 한가운데를 관통한 처참한 모습"이라 하였다. 조국을 위해 순국할 때, 윤의사의 나이는 약관 25세였다!

예산의 역사 속에서 예산의 인물 세 분을 선정한다면, 추사와 매헌 다음으로는 누구를 넣을 수 있을까. '예산 3걸'에 넣자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이는 신양 출신의 박현영이라는 인물을 주목하는데, 나는 수덕사 앞 수덕여관의 바위그림의 화가 고암 이응로(1905-1992)를 추천하고 싶다. 원래 홍성 출생의 한국화가였던 고암은 프랑스에서 문자 추상이라는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독특한 화법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한국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림 때문이 아니라 1968년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때문이었다.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년 옥고를 치른 후,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그가 남긴 문자추상의 암각화는 수덕사 입구의 명물이 되었으며, 선생의 사후인 1996년 '이응로 선생 사적지'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네포시대'는 오는가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역에서는 홍성과 예산에 걸치는 지점에 충남도청의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



덕산온천

은 현 단계에서 노력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에 대한 보다 진지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까마귀가 전해줄 좋은 소식은,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가운 일이기 때문이다.

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는 2천년대 도정의 주요 지표로서, '내포문화권의 개발'을 내걸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예산을 경유하는 대전-당진 간의 고속도로 공사도 진행중이고, 인근 천안-아산이 수도권 개념에 포함되어 개발붐을 일으키고 있는 단계이다.

충남 대부분의 시·군처럼 예산 역시 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진행중이다. 어떻게 인구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군세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민의 큰 과제로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물산과 문화자원, 관광자원의 존재를 생각하면, 전망이 비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양질의 온천수를 보유한 덕산온천의 경우만하더라도 앞으로의 다양한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반 자원들을 개발하여 소비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로 묶어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의 역사 문화자원의 효율적 정비작업